

# KIA 선발 안정화 '속도'...1위 질주 '가속도'

알드레드 '첫 승'...최형우 KBO 최초 1600타점 등 '타선 지원'  
윤영철·황동하도 '릴레이 호투'...이번주 안방서 LG·한화 상대



KIA 타이거즈의 '마운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1위 싸움에 청신호가 켜졌다.

KIA는 KT위즈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치렀다. 이 경기에서 시선이 쏠린 지점은 마운드였다.

올 시즌 뜨거운 방방이로 타율, 홈런, 장타율 부문에서 팀 1위를 지키고 있는 KIA지만 '롤러코스터'를 타는 타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1위 질주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운드, 특히 안정적인 선발진이다.

앞서 이의리와 윌 크로우가 연달아 부상으로 빠지면서 위기를 맞았던 KIA는 황동하와 캡 알드레드로 새판을 썼다. 그리고 KT와의 주말 3연전은 새로 구성된 선발진의 경쟁력을 테스트하는 무대가 됐다.

알드레드를 시작으로 윤영철과 황동하로 이어진 선발 로테이션.

남은 시즌 성적과 운영을 좌우할 마운드의 중요한 퍼즐인 알드레드는 지난 8일 두산전에서 3이닝 6실점의 혹독한 KBO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첫 무대였던 만큼 긴장감도 크고, 적응도 필요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보여줘야 하는' 경기였다.

프로 두 번째 해를 보내고 있는 윤영철도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정교함이 떨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던 상황, 여기에 선발로 자리를 굳힌 황동하가 처음 4일전을 소화하는 만큼 그 결과도 관심사였다.

일단 세 선수 모두 만족스러운 경기를 하면서 KIA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 수 있었다.

알드레드는 14일 KT를 상대로 한 두 번째 경기에서는 5이닝(86구) 5피안타 1볼넷 무실점의 피칭을 선보였다. 변화무쌍한 변화구로 7개의 탈삼진도 뽑아내면서 승리 투수가 됐다.

타자들은 화끈한 타선 지원으로 알드레드의 호투에 힘을 더해줬다.

이날 최형우가 쿠에바스를 상대로 투런포를 기록하는 등 홈런 포함 4안타로 6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KBO리그 사상 첫 1600타점 주인공이 됐다. 최형우를 앞세운 KIA는 11점을 뽑아내면서 알드레드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15일에는 윤영철이 웃었다. 4회 3루수 김도영의 실책으로 인해 실점은 했지만 윤영철은 5이닝(94구) 3피안타 2볼넷 5탈삼진 1실점(비자책점)의 호투를 기록했다. 특유의 정교함과 운영 능력도 선보였다.

5회 2사 2·3루에서 펼쳐진 강백호와의 승부가 백미였다.

윤영철은 2-1로 앞선 5회 신봉기와 김상수를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어 로하스의 내야 안타 뒤 야수 선택이 나오면서 윤영철이 2사 2·3루에 몰렸다.

타석에는 KT를 대표하는 타자 강백호가 들어섰다. 초구 헛스윙 뒤 볼, 다시 헛스윙과 볼이 나오면서 2볼 2스트라이크가 됐다. 5구째 파울 뒤 볼이 들어오면서 풀카운트가 됐다. 긴장감 넘치는 승부에서 윤영철은 직구 승부로 7구째 헛스윙 삼진을 만들고 포효했다.

KIA는 이규장현식-최지민-전상현-정해영으로 1점의 리드를 지키고 승리를 만들었다.

16일에는 황동하가 박수를 받았다.

지난 11일 SSG전에서 4.1이닝 4실점으로 5회를 마무리하지 못했던 황동하는 4일 휴식 뒤 KT를 상



혹독한 KBO리그 데뷔전을 치렀던 KIA 선발 알드레드가 지난 14일 KT를 상대로 첫 승을 거뒀다.

(KIA 타이거즈 제공)

대하기 위해 마운드에 올랐다.

1회부터 활동하는 빠른 템포로 공격적인 피칭을 펼치며 아웃카운트를 쌓아갔다.

배정대를 3구째 투수 망블로 잡았고, 로하스는 3구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강백호는 7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활동하는 2회 문상철과 장성우를 내야 망블로 아웃시킨 뒤 이호연에게 중전안타는 맞았지만 오운석을 2루 망블로 잡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2-0으로 앞선 3회 위기가 있었다.

시작과 함께 안현민에게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한 황동하는 폭투로 1사 2루에 몰렸다. 신봉기와 배정대를 중견수 플라이와 삼진으로 잡았지만 로하스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았다. 하지만 활동하는 강백호를 삼진으로 잡고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다.

활동하는 4회 장성우에게 중전안타를 내렸지만 탈삼진 하나를 추가했다. 5회에는 중견수 최원준의 수비 도움도 받았다.

선두타자 안현민의 유격수 내야안타 뒤 신봉기의 희생번트로 1사 2루가 됐다. 배정대의 타구를 최원준이 몸을 날려 잡아냈다. 이어 담장 앞까지 날아간 로하스의 타구도 최원준이 잡아내면서 5회가 실점 없이 끝났다. 이와 함께 활동하는 성적은 5이닝(82구) 4피안타 1볼넷 5탈삼진 1실점이 됐다.

활동하기까지 호투 릴레이를 이어가면서 KIA는 선발 안정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무실점 광주FC '무결점 승리'

K리그1 17R 김천에 2-0 승  
엄지성·교체투입 박태준 골

광주FC가 김천상무를 상대로 16경기만의 '클린 시트'로 연승을 기록했다.

광주가 지난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김천상무와의 K리그1 17라운드 홈경기에서 박태준과 엄지성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광주가 무실점을 장식한 것은 FC서울과의 개막전 2-0 승리 이후 처음이다.

두 팀이 경기 시작과 함께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선제골 사냥에 나섰다.

전반 4분 광주 베카의 헤더가 나왔지만 공은 골대를 비껴났다. 2분 뒤에는 김천상무 모재현이 슈팅을 시도했지만 광주 골키퍼 김경민이 버티고 있었다.

이어진 광주 공격에서는 정호연의 터닝 슈팅이 나왔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12분에는 오른쪽에서 공을 몰고 올라간 김한길의 상대 수비진을 따돌리고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골키퍼에 막혔다.

김천상무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전반 14분에는 김진규가 슈팅을 시도했고, 전반 23분에는 박승욱의 오른쪽 슈팅이 광주 골대로 향했지만 김경민이 공을 쳐냈다.

전반 33분 엄지성이 상대 수비진을 몰고 전진한 뒤 오른쪽으로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공이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 35분 광주가 상대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잡았다.

중원엔 정호연이 패스를 한 뒤 김천상무 조현택의 백패스에 걸려 넘어졌다. 주심은 바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적 우위 속 전반전 득점에는 실패한 광주, 후반 시작과 함께 이삼기가 왼쪽에서 슈팅을 시도했다.

후반 14분 이정호 감독이 교체 카드로 분위기를 바꿨다. 김한길과 문민서를 불러들인 이정호 감독은 가브리엘과 박태준을 투입했다.

교체 멤버들이 들어서자마자 이삼기가 기습적인 슈팅을 날렸고,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는 가브리엘이 헤더로 상대를 압박했다.

후반 24분 이정호 감독이 다시 교체 카드를 빼어들었고, 이삼기를 대신해 두현석을 투입했다. 또 베카를 빼고 빅토를 그라운드에 올렸다.



광주FC의 박태준(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5일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그리고 후반 30분 기다렸던 골이 나왔다.

코너킥 상황에서 두현석이 뒤에 있던 정호연에게 공을 흘렸다. 정호연은 문전으로 공을 보냈다. 박태준이 뛰어올라 헤더를 시도했고 이내 김천상무의 골망을 흔들었다. 5월 15일 울산전에서 시즌 첫골과 3호 도움을 기록했던 박태준과 정호연이 다시 한번 골을 합작하면서 2호골과 4호 도움을 장식했다.

후반 43분 승부의 추를 기울이는 추가골이 터졌다.

왼쪽에서 신창무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엄지성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슈팅 템포를 조율한 뒤, 오른쪽으로 슈팅을 날리면서 김천상무의 골대를 뚫었다. 포항전에서 골대를 가르고도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아쉬움을 삼키는 등 지독하게 골문이 따르지 않았던 엄지성의 시즌 2호골.

이후 5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경기 종료 직전 김천상무 최기운의 위력적인 슈팅이 나왔지만 골키퍼 김경민이 공을 막아내면서 2-0, 무실점 승리를 완성했다.

결승골을 기록한 박태준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블락을 해주는 상황이었다. 블락하고 호연이가 공을 잡아서 슬슬 나왔다. 오프사이드인 줄 알고 나오려고 했는데 공이 와서 일단 헤딩을 했다. 그래서 골 넣고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 골 상황을 봤다"며 "공이 잘 올라와서 타이밍이 잘 맞았다. 골을 넣어서 좋기보다는 내 골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다"고 골 상황을 이야기했다.

엄지성은 "전에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운이 안 따라왔다. 좋은 상황이 나와서 너무 기쁘다.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움직였다, 템포를 뺐고, 그 공간이 보였다. 그래서 침착했던 것 같다. 운이 좋았다. 창무형이 좋은 타이밍에 패스를 주고 그걸로 인해서 템포를 뺐고, 다음에 내가 슈팅 모션을 해서 상대가 넘어졌는데 그걸 잘 이용해 골이 들어갔다"며 "2주 간의 팀이 있었고 날씨도 더워서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였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덕분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많은 추억 안겨준 광주 지도자로 다시 찾겠다"

축구연맹 기술위원 정조국 광주 방문  
2016 득점왕·MVP '최고의 해'  
"이정호 감독 보고 배우는 중"



"광주는 좋은 기억만 남아있는 곳, 나중에 그라운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광주FC와 김천상무의 K리그1 17라운드 경기가 열린 지난 15일 반가운 손님이 광주축구전용구장을 찾았다.

올 시즌 프로축구연맹 TSG(기술연구그룹)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조국(사진)이 '친정' 나들이를 한 것이다.

지난해 제주유나이티드의 감독 대행을 맡기도 했던 그는 '작'으로 광주축구전용구장을 찾기는 했었다. 옛 광주 선수수가 돼 후배들의 경기를 지켜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은 경기가 끝난 뒤 "내가 있을 때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긍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서 기쁘다. 열정적인 도시이고, 너무나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구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웃었다.

정조국은 지난 2016년 광주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은 특별했다.

2016시즌 31경기에 나온 그는 20골을 폭발시키면서 자신의 개인 통산 최다골 기록을 새로 만들었다. 광주의 득점 역사도 새로 쓴 그는 '득점왕'은 물론 MVP까지 차지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광주에서 제2의 축구 인생을 연 정조국, 광주는 '정조국 효과'를 토크하며 누리면서 축구붐을 일으켰다.

정조국은 "1년 밖에 있지 않았지만 광주는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준 구단이다. 다시 정조국이라는 이름 석 자를 각인시킬 수 있었다. 나도 광주에 대한 애정이 크다"며 "광주도 저로 인해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광주가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고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추억만 가지고 좋은 이별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2020시즌을 끝으로 선수생활을 마무리한 그는 지도자로서 또 다른 전성기를 꿈꾸고 있다.

정조국은 "연맹 TSG 기술 위원하면서 경기 많이 보러 다니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고 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지도자다. 좋은 감독이 되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준비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를 이끌고 있는 이정호 감독도 그에게 영감을 주는 지도자다.

정조국은 "지금 핫한 광주 이정호 감독님이 팀을 잘 이끌고 계신다. 이정호 감독님의 색이 뚜렷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브랜드화가 될 수 있고 감독으로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나도 나만의 색을 가지고, 좋은 지도자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오랜만에 광주 팬들에게 인사드리게 됐다. 언제 어디서든 내 이름이 나오면 많은 환호를 해주었다. 감사하다. 멋진 모습으로 다시 그라운드에서 뵙 수 있는 날을 그리겠다"고 광주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